

세계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뉴욕의 갤러리들

글: 정유선 뉴미디어 아티스트/서울여대 초빙강의 교수

2009년 120억 달러 규모였던 미국의 미술 시장은 2018년 거의 3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뉴욕 맨해튼 전역에 퍼져있는 상업 갤러리는 약 1,500개 정도로 추정되며 전 세계 미술품 거래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고시안, 데이비드 즈위너 갤러리 등 매출 상위 5%인 대형 갤러리들은 전체 미술품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술 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Primary Art Market 즉 1차 시장은 상업갤러리 혹은 상업 갤러리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부스를 설치하고 작품 판매 목적의 전시 형태를 가진 아트 페어를 보통 포함시킨다. 그리고 컬렉터 혹은 중개인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2차 시장 즉 Secondary Art Market으로 분류하며 보통 경매회사, 아트 펀드 등이 2차 시장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미술품이 거래되는 세계미술시장을 움직이는 뉴욕의 상업 갤러리들은 대부분 뉴욕의 소호나 첼시 등에 본거지를 두고 자신의 소속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소개하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뉴욕 소호나 첼시 등의 갤러리를 통해 당시 현대 미술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러 온 컬렉터 혹은 아티스트 등 미술관계자들을 마주치는 일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아트 딜러, 세계 미술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가고시안 갤러리(Gagosian Gallery), 매리 분 갤러리(Mary Boone Gallery), 데이비드 즈위너(David Zwirner Gallery)처럼 상업 갤러리들은 아트 딜러가 자신의 이름을 딴 갤러리를 운영하며 미술계의 실권자로



지금은 패션의 중심지로 변모한 소호 지역

떠오르며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고 세계 미술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뉴욕 아트딜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유럽이 혼란을 겪게 되는 20세기 미술시장의 중심이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올라가 봐야 한다.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부유층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들은 그동안 수집한 미술품을 판매하기 위해 아트딜러를 찾게 되고, 유럽의 아트딜러는 미술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월가(Wall St.)를 중심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뉴욕으로 찾아오게 된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뉴욕에서 매년 개최되는 아모리쇼(Amory show)를 통해 유럽 모더니즘 미술이 미국에 소개되고 있을 시기였다. 이때 뉴욕을 중심으로 갤러리들이 증가하게 되고 1950년대에 대표적인 아트딜러인 페기 구겐하임은 당시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당시 유럽에서 활동하던 앙드레 브르통, 막스 에른스트 등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미국 망명을 후원하며 뉴욕미술시장에 유럽에서 시작된 초현실주의 사조를 소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마르셀 뒤샹을 만나게 되

고 아방가르드 미술에 영향을 받으며 잭슨 폴록 등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을 후원하고 활동하며 미국 뉴욕으로 미술시장의 중심이 옮겨 가는데 밑바탕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60년대에는 ‘현대 미술계의 대부’로 불리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화상 레오 카스텔리(Leo Castelli)가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잭스퍼 존스(Jasper Johns), 앤디 워홀 등 미국 팝아트(Pop Art)를 대표하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색면 추상, 미니멀 아트 등 20세기 현대 미술사의 현장을 만들어낸다. 20세기 후반에는 미술 작품수집이 미술품 애호가에서 투자자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전문화된 상업적인 아트딜러가 뉴욕(New York)을 중심으로 성행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국제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세계 미술시장 내에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며 갤러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뉴욕 예술 중심지역의 이동, 소호(Soho)에서 첼시(Chelsae)로

또한 뉴욕이 예술 중심지로 성장한 배경에는 지역적인 역할도 컸다. 슬럼화되어 있던 소호 지역은 창작공간



서 있는 잭스퍼 존스와 레오 카스텔리 / 출처 :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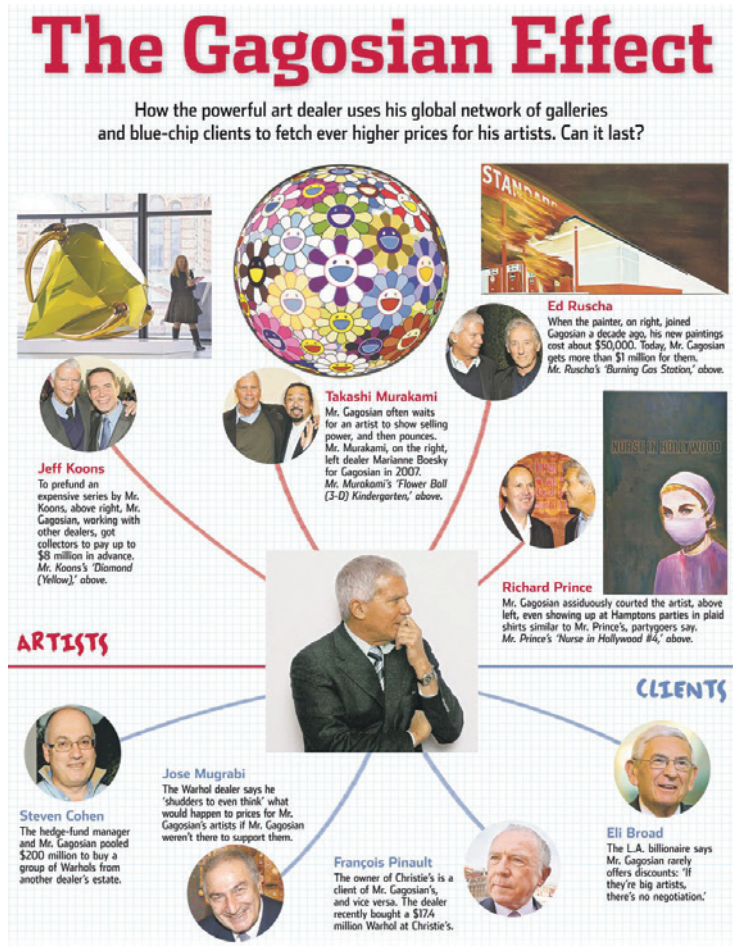
9월에 오픈하는 사라 지(Sarah Sze)의 전시 준비 중인 첼시에 위치한 Tanya Bonakdar Gallery

과 갤러리들이 자리한 예술 특구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했고 이것을 시작으로 첼시, 롱 아일랜드 시티, 윌리엄스버그 지역 등으로 예술 특구가 확장되었다. 1860년대에 뉴욕 소호 지역은 주거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데 반해 새로운 노동력 인구의 유입이 있었고 기존의 주택건물은 공장, 창고, 오피스 건물로 개조되거나 지어졌다. 이 지역의 건물은 빠른 공정과 저렴한 비용, 강도 그리고 다양한 내부의 변화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새로 지어지거나 레노베이션되어 4~6층 철근 건물로 이루어진 지금의 소호나 첼시 갤러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뉴욕 고유의 건축 스타일로 나타나게 된다. 1960년대 초에 이르러 노화된 철근 건물의 일부가 창고로 사용되거나 아예 방치되면서 비어버린 공간은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맨해튼 중심가라는 탁월한 근접성, 독특한 건축적 특징, 넓고 개조 가능한 내부 공간 및 저렴한 임대비용 등 요인들이 예술가들에게는 적합한 창작공간으로 다가왔다. 이와 같은 변화가 1970년대까지 지속되면서 소호 지구에 600여 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불법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군집 형 예술인 창작스튜디오단지가 탄생하기까지 이르렀다.

1980년대 초에 이르러 300군데가 넘는 창작공간과 갤러리가 소호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카페와 레스토랑, 상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뒤이어 입주하게 되면서 드디어 오늘날의 소호 문화 지구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소호는 갤러리와 레스토랑의 밀집 구역으로 변하고 미술 창조지구는 첼시 구역으로 이동하였다. 유명한 예술인 창작스튜디오와 갤러리들이 하나씩 소호 지구로부터 첼시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뉴욕 미술의 중심지는 첼시로 옮기게 되었다.

가고시안 갤러리(Gagosian Gallery)

가고시안 갤러리는 세계 최고의 아트 딜러이자 사업가로 꼽히는 래리 가고시안이 설립한 갤러리로 소호, 첼시 등 뉴욕에만 총 5개의 지점이 있고 L.A, 런던, 파리, 로마, 홍콩 등 세계 곳곳에 15개의 지점이 있다. 가고시안 갤러리는 연 매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세계 미술시장의 1/30을 차지하고 현대 미술을 다루는 1차 시장과 대가들의 작품을 다루는 2차



월스트리트 저널의 가고시안 효과에 관한 기사 / 출처 : 월스트리트 저널

시장 모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45년, LA에서 태어난 래리 가고시안(Larry Gagosian)은 1976년 브록스톤 갤러리(Bronxton Gallery)를 열어 15달러 짜리 포스터를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 영국의 유력 미술지인 아트리뷰(Art Review)가 선정하는 '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Power 100)'에서 2010년 1위를 차지한 것 이외에도 2005년 이후 지속해서 10위권 내에 위치해왔다. 2011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아티스트보다 가고시안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작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가고시안이 선택한 아티스트로 시장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가고시안 효과(Gagosian effect)'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가고시안 갤러리는 신진 아티스트보다는 스타 아티스트들의 영입에 더 주력하는 편으로 타 갤러리 소속 유명작가를 스카우트하여 최고의 전속작가 포



첼시 지역의 가고시안 갤러리 전경 / 출처 : 가고시안 갤러리 홈페이지

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전속작가 또는 파트너로 소속된 스타 아티스트들은 피카소, 리처드 프린스, 자코메티, 에드 루샤, 타카시 무라카미, 존 커린 등 100명이 넘으며 2015년에는 백남준이 전속 작가로 편입된 바 있다.

페이스 갤러리(The Pace Gallery)

현재 뉴욕에 4개 지점을 포함하여 런던, 베이징, 홍콩 등에 9개 지점을 가진 페이스 갤러리는 1960년 아트 딜러이자 영화 프로듀서 및 감독으로 활동한 아널드 글림처(Arnold Glimcher)가 설립한 곳으로 가고



시안 갤러리와 함께 뉴욕 미술계를 양분하는 라이벌 갤러리로 유명하다.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 예술품을 취급하는 페이스 프리미티브(Pace primitive Gallery), 후안 미로, 마르크 샤갈 등의 판화 작품을 취급하는 페이스 마스터 프린츠 갤러리(Pace Master Prints Gallery), 세계적 사진가들의 작품들을 취급하는 페이스 맥길 갤러리(Pace Macgil Gallery) 등 특화된 전문 예술 분야를 다루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이우환, 장사오강, 척 클로스, 데이비드 호크니, 요시모토 나라 등의 전속작가를 두고 있으며, 서울 이태원에도 분점을 두고 있다. 



페이스 갤러리 서울 분점 전시 광경 / 출처 : 페이스 갤러리